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내식 컵라면'

해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재미 중 하나다. 이중 컵라면은 한국인의 '최애 음식'이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최근 난기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석에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돼 있어 화상의 위험이 컸다.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자 기내에서 먹기 위해 급기야 컵라면을 싸오는 승객들이 생겼다. 이들은 라면을 위한 '뜨거운 물'을 승무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객실에서 개인이 휴대한 컵라면 취식 목적으로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승객들은 뜨거운 물 제공까지 막으면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비즈니스 이상 좌석에선 계속 라면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일반석에서도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사들은 '좌석 밀집도가 다르다'며 상급 좌석의 라면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SnackNews #기내식컵라면금지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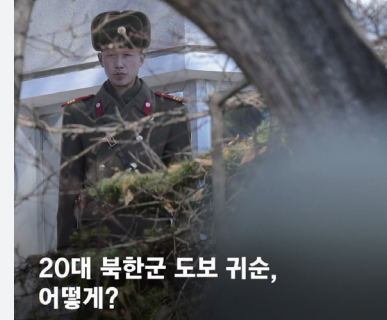
진일보



전남 '가을꽃' 구경은 여기서

다가오는 가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전남의 가을꽃 명소를 소개한다. 장흥 선학동 마을에선 메밀꽃이 9월 말 개화해 10월 중순 절정에 이른다. 매년 10월에는 마을 주민들이 여는 메밀꽃 축제에서 메밀가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곡성 대황강에서는 랜드마크인 '출렁다리'를 산책하면서 빼어난 경치와 함께 흐드러진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다. 신안 퍼플섬에서는 라벤더, 라일락 등 보라색 꽃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아스타국화꽃의 경우 초가을부터 가을 내내 피어있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다.

진일보



20대 북한군 도보 귀순, 어떻게?

지난 20일 비무장상태로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20대 북한군 하사가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까지 내려오는 동안 북한 감시초소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탈영병 포획 작전 중인 것처럼 둘러대며 귀순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순 사유로는 식량난 등 북한 내 열악한 상황과 남한 문화 동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 진소에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굶어 죽고 있다"며 "귀순 결정은 최근 소속 부대가 해체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곳으로 좌천돼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일보



왕관 혹은 선박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 글자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아랍어를 캘리그래피로 나타낸 것이다. 아랍 캘리그래피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역사성과 의미를 인정받은 예술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이러한 아랍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서체를 14세기 제작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규란의 영인본을 통해 직접 살펴볼 수 있다. ACC 특별전시 '아랍 문자, 예술이 되다'는 오는 11월24일까지 열리며 아랍어를 직접 따라 써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진일보



'금테크'가 유행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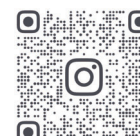
최근 금과 1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를 넘어서면서 '금테크(금+채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은 통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값이 오르는데,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골드바, 금권을 사 모으는 게 유행으로 번졌고,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금을 팔기 시작하면서 금테크 열풍에 편승하고 있다. 크게 금테크는 현물 금을 받을 수 있는 '골드뱅크',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인 '금 ETF'로 이뤄진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